

포티넷코리아 '포티게이트5000' 출시

대기업, 통신사업자 본격 공략

네트워크보안시스템 업체 포티넷코리아(대표 김종덕)가 포티게이트 제품군에 속하는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포티게이트 5000 시리즈'를 발표했다.

대기업과 통신업체, 관리서비스공급업체(MSP)의 네트워크, 에지 또는 코어 배치에 맞게 개발된 새로운 '포티게이트 5000 제품군'은 2블레이드에서 14블레이드로 확장이 가능하고 수많은 블레이드를 단일 쉘시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보호기능을 제공한다.

이 제품군은 3-슬롯의 '포티게이트-5020', 5-슬롯의 '포티게이트-5050', 14-슬롯의 '포티게이트-5140' 등 세 가지 쉘시 모델로 이뤄져 있다.

각 모델은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포티게이트-5001' 블레이드나 고가용성(HA)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포티게이트-5003' 블레이드를 갖추고 있다.

'포티게이트-5001' 블레이드는 VPN, 바이러스 방지, 침입예방, 안티스팸, 웹 콘텐츠 필터링, 트래픽 셰이핑 등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방화벽이 적용된 경우 작업 처리량을 4Gbps까지, 3DES IPSEC VPN이 적용된 경우 400Mbps까지, 바이러스 방지 스캐닝이 적용된 경우 250Mbps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포티게이트-5000 패밀리는 4Gbps 방화벽 이상으로 확장 가능하다.

ASX 가속형 보안 플랫폼에 통합한 포티넷은 포티게이트 솔루션과 동일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공급업체의 주요 제품을 연결하는 경우에 비해 자본이나 운영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밝혔다.

각 '포티게이트 5000 시리즈' 쉘시에는 여러개의 '포티게이트 5001' 블레이드를 설치할 수 있어 전체 시스템 처리량을 모든 서비스에 대해 기가비트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포티게이트 5000 시리즈'는 최신 바이러스와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업데이트를 전세계에 하루 24시간 제공하는 포티넷의 포티프로텍트 네트워크(FortiProtect™ Network)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金東起 기자〉

kck@kbanker.co.kr